

例(4) 肝虚証治療中の三十歳 女

肝虚症であるから曲泉、陰谷、補、経渠、中封を瀉し型の通り、腹部の標治を終り腰部治療中眠ってしまったので、これは治療の為め気分よくなり、眠った様なものの肝に対し、補が不足で脾実証を起したものと思い、眠った患者を起したら、一眠りしたい気持だと云われたので、女であるから右足厲兌を強瀉したら、眠気が即座に去り、気分爽快になったと、この患者の夜の不眠症は、肝虚証であり、昼間身体だるく眠ったいののは、土実証 (脾胃実証) の為めである。この他昼寝三十分をナボレオンの例をあげ、誇の如く云う人にも、即座眠くなくさせたりした例は沢山ある。脉診の上右手関上実脉の場合は、悉く奏効し、針の偉効を、認識させるに絶対的である、これらは五行穴の原理に依る作用の外他理は何にもない。

예(4) 간허증 치료 중인 30 세 여자

간허증이므로 곡천, 음곡, 보, 경거, 중봉을 사하는 형대로 복부의 표치를 마치고 요부치료 중 잠들어 버렸으므로 이는 치료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잠든 것 같지만 간에 보가 부족하여 비실증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하고 잠든 환자를 깨웠더니 한숨 자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였으므로 여자이기 때문에 오른발 厲兌여태를 강하게 사했더니 졸음이 즉시 가고 기분이 상쾌해졌다고 이 환자의 밤 불면증은 간허증이며 낮 동안 몸이 나른하게 졸린 것은 토실증(비실증)을 위한 것이다.

이 밖에 낮잠 30 분을 나폴레옹의 예를 들어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에게도 즉시 졸리지 않게 한 예는 많이 있다. 맥진상 오른손목 경골상 관상 실맥의 경우는 모두 주효하여 침의 위효를 인식시키는 데 절대적이다. 이들은 오행혈 원리에 따른 작용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例(5) 二十八歳 女 (肝虚証治療中の患者)

肝虚証の本治法の曲泉、陰谷のみ補し、経渠、中封は瀉しなかつた、この如く補法のみをやリ、腹部標治中患者は今日、何時も足の治療が終ると頭が軽くなり、眩暈症がよくなるのだが、ちっともよくなりませんと云うので早速 経渠、中封を瀉しながら容態をきくと、一針毎に、この証がなくなりますといわれたこれ又五行理法でなければ、見られないものである。

예(5) 28 세 여자 (간허증 치료중인 환자)

간허증의 본치법 곡천, 음곡만 보하고 경거, 중봉은 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법만 하고 복부표치중 환자는 오늘날 항상 다리치료가 끝나면 머리가 가벼워지고 현기증이 좋아지는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니 바로 경거, 중봉을 사하면서 용태를 들으면 한 침마다 이 증이 없어진다고 했던 이 또한 오행이법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이다.

例(6) 四十二歳 男 腎虚証治療中患者

近頃特種の用件で奔走中 上脘から水分間の左右腹直筋外一センチを境に、その一円が非常に痛むと、これは胃痙攣の如く四苦、八苦の痛みではなく、陰性の様であったから、脉見る聞もなく、(1) 土性陰經の左足、太白を補して痛みなくなったが、心下鳩尾部が、痞へ気分悪いと、これは 肝実土虚で土を補すると肝邪は逃場なく、木本性の心下満の症を起した。それで木の子穴 行間をも瀉したが、少しの差あるのみ、改めて心下満の古典の理に従って、木の子経たる火経の木穴、即ち 少衝を瀉しながら容態をきくと、すつかりよくなったと云うので抜針した。この患者は 腎虚証であるから、土実であったのに急に虚となったのは、怒り重なる用件で肝を傷み、肝旺実証を突然起し、その影響で土即ち、脾が剋され急病として土虚証を起したのである。斯様に五行の理論と経絡、経穴の性能を古典通りによく喬込み、自由自在に駆使出来る様になれば、治療中の症状及び突急病に、五行の理が対処すべき手段を道標として、次々に用うるべき穴を教えて呉れる、又それが必らず其の症を変化させてしまう、実に有難く驚く外ない奇妙な存在である。

예(6) 42 세 남 신허증치료 환자

요즈음 특종의 용건으로 분주중 상완에서 수분간 좌우 복직근외 1cm를 경계로 그 일원동전크기가 몹시 아프면 이는 위경련과 같이 사고 팔고의 통증이 아니라 음성인 것 같았으므로 맥상으로 볼 겨를도 없이 (1)과 같이 토성 음경의 왼발 태백을 보하여 통증이 없어졌는데, 심하 구미부가 울렁울렁 기분 나쁘면 이는 간싯토허로 토을 보하면 간사는 놓칠 수 없고 목본성 심하만증을 일으켰다. 그래서 목의 자혈 행간도 사사하였으나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새삼 심하만 고전의 이치에 따라 목의 자경한 화경의 목혈, 즉 소충을 사하면서 용태를 보니 부쩍 좋아졌다고 하여 발침하였다. 이 환자는 신허증이므로 토실이었는데 갑자기 허가 된 것은 노여워지는 용건으로 간을 상하게 하여 간왕실증을 갑자기 일으켰고, 그 영향으로 토즉, 비가 극화되어 급병으로서 토허증을 일으킨 것이다.

이와 같이 오행의 이론과 경락, 경혈의 성능을 고전대로 잘 짜넣어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면 치료 중의 증상 및 돌급병에 오행의 이치가 대처해야 할 수단을 이정표로 삼아 차례차례 사용할 수 있는 혈을 가르쳐 주는, 또 그것이 반드시 그 증을 변화시켜 버리는 참으로 고맙고 놀랄 수밖에 없는 기묘한 존재이다.

例(7) 二十八歳 男 胃潰瘍の患者

土虚証として治療中或い日、右不容から期門間の圧痛及び不快感が、治療でなくなったのに、不養生もないにも不拘、再び圧痛、不快感ある由、これは火痰である。追払う自信

で先ず鄰門を瀉した。圧痛はないが、氣持の悪いものが心下部へ移っているとのことで、これは心下滿であるから、火経の木穴少衝を瀉したら忽ち消失した。これは土を剋する肝木中に含まれている火を瀉すると共に、又肝木氣も瀉され脾土は、安泰になるという訳である。

예(7) 28 세 남 위궤양 환자

토허증으로 치료 중 어느 날 우불용不容에서 기문期門간 압통 및 불쾌감이 치료가 나아지게 되었는데도 불양생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시 압통, 불쾌감이 있는 이유는 화담火痰이다. 쫓아낼 자신으로 먼저 액문鄰門을 사했다. 압통은 없으나 기분 나쁜 것이 심하부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며, 이는 심하만心下滿이므로 화경의 목혈소충少衝을 사사하니 금세 소실되었다. 이는 토을 극하는 간목 중에 들어 있는 화을 사함과 동시에, 또 간목기도 사되고 비토는 평안해진다는 것이다.

例(8) 四十二歳 男 胃潰瘍の患者

初診で陰陽虛實判別不明、症状からして脾、肺虛であつたから、金虛証として治療、翌日効なく腎、肝脉虚証を現わす、併し肝虚証とする事は出来ない。心、脾虚証として調べる必要を認め、心下及び胃部膨滿感又は、圧痛の程度を患者に認知させてから、先ず左側大陵(心、脾の補穴)を丹念に補しながら、以上症状の増減を質した処、心下は倍以上の圧痛なくなり、膨滿感は殆ど消失した。依つて心、脾の虚証として経過良好であつたが、四日後又前記症状現われ、脉は脾、肺虚となった、又前記の如く苦痛程度を患者に、認知させてから、左側太淵を丁寧、約一分間補している内に胃部の不快感及び食滯感が下腹へ降り消え去ると云う、以来肺(金)虚証として治療間もなく全快した。この如く五行治療法は随証治療である。五行理念に適中したならば、一針毎に五行規法の如く、其の偉効を奏する、それ爾來執証に困つた時も、迷う時一針行つて、証を定めるに一助としている。

예(8) 42 세 남위궤양 환자

초진에서 음양허실 판별 불명, 증상으로 보아 비, 폐허였으므로 금허증으로서 치료, 익일 효과 없이 신, 간허증을 나타내는 아울러 간허증으로 삼을 수 없다. 심, 비허증으로 알아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심하 및 위부 팽적감 또는 압통의 정도를 환자에게 인지시킨후 먼저 좌측 대릉(심, 비의보혈)을 꼼꼼히 보하면서 이상 증상 증감을 질실적으로 느낀 곳, 심하는 배이상의 압통이 없어지고 팽만감은 거의 사라졌다. 따라서 심, 비의 허증으로서 경과가 양호하였으나 4 일 후 다시 상기 증상이 나타나고 맥은 비, 폐허가 되었다거나 상기와 같이 고통정도를 환자에게 인지시킨 후에 좌측 태연을 정중하게 약 1 분간 자침으로 보하고 있을 때 위부 불쾌감 및 식체감이 아랫배에 내려 가면서 사라지다고 말한다. 이후 폐(금) 허증으로서 치료중 얼마 지나지 않아 완쾌되었다. 이와 같이 오행치료법은 수증치료이다. 오행이념에 적중했다면 한 침마다 오행규법과 같이 그 위효를 발휘하는, 그 이후 집증에 곤란한 때도 방황할 때 한 침을 놓고 증을 정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例(9) 二十六歳 女 肝腎陰陽共虛証

この患者は、病氣の間屋見たいなものであつたが、約十日間の治療で、殆んど消退した

が主証たる眩暈、頭重、偏頭痛が中々消尽せず 既往の様ではなくとも間々起るので、顳額部(ショウジュこめかみ)痛に対し胆経俠溪の圧痛点を求め、刺針暫補した(女であるから右側のみ) 其の痛み、消散したが額へ重苦しい熱感が移ったので、肝の相剋経の土性胃経の厲兌を、少し荒く捻針を行つて瀉している内に、又熱重感が前頭部へ移った。早速膀胱経の通谷を補したら、またこれが百会の辺に移ったので、百会穴に後頭部へ向け、斜針輕瀉した。今度は邪氣逃場なく、煙の如く消散した、この如く邪を追いかけた理由は、五行治療法に依る相生相剋を運用したものに過ぎない。

예(9) 26 세 여 간신음양공허증

이 환자는 병 도매상 같았지만 약 열흘간의 치료로 대부분 소퇴했지만 주증인 현기증, 두중, 편두통이 좀처럼 소진되지 않고 기왕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간간히 일어나므로 환자놀이통에 대하여 담경협계의 압통점을 구하고 자침 잠보하였다(여자이므로 오른쪽만). 그 아픔, 소산했지만 이마로 답답한 열감이 옮겨갔기 때문에 간상극경의 토성 위경 여태를 조금 거칠게 염침하여 사사하는 사이에 다시 열중감이 전두부로 옮겨갔다. 즉시 방광경의 통곡을 보하니 다시 이것이 백회변으로 옮겨졌으므로 백회혈로 뒤통수를 향해 사침경사하였다. 이번에는 사악한 기운 없이 연기처럼 소산된, 이처럼 사악을 쫓은 이유는 오행치료법에 따른 상생상극을 운용한 것일 뿐이다.

例(10) 三十六歲 女 左側耳聾

肝腎虛証として治療し左耳から突然、濃汁多量滲出、気分一転殆んどよくなったにも不拘、偶々耳鳴が起り、中々治らない。又聴会、翳風の超圧痛如前である。殆んど治った筈の耳に、これは一時に消退出来るものと考え、肝腎の虚であるから、木の母たる水を強力に補することにして赤羽式皮内針を曲泉に 0.5 センチ、通谷 0.2 センチ、俠溪 0.3 センチ、以上水穴のみを経絡の流に随って置針五分間したが、耳鳴り消散し其後再び起らない。又三分間の内何時の間にか翳風、聴会のあれだけの過敏な、圧痛が全然無くなった。

예(10) 36 세 여자측귀농

간신헌증으로 치료하다가 왼쪽 귀에서 갑자기 농즙 다량삼출, 기분 전환으로 거의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명이 일어나 좀처럼 낫지 않는다. 우청회, 예풍의 초압통을 이전과 같이 거의 다 나았을 귀에 이것은 일시에 소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간신의 허이므로 목의 모체인 수를 강력하게 보하기로 하고 아케바네 선생의 피내침으로 곡천에 0.5 cm, 통곡 0.2 cm, 협계 0.3 cm 이상 수혈만을 경락류를 따라 치침 5분간 하였으나 이명 소산되고 그 후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또 3분 동안 어느 틈엔가 예풍, 청회의 그토록 과민한 압통이 전혀 없어졌다.

例(11) 三十六歲 女(筆者の妻) 左下奥虫歯痛

下歯は、大腸経の循る処としてある(胃経と書もある)。私の経験からも、大抵大腸経で治るものであった。併しこの歯痛は合谷、温溜、曲池、肩井、翳風、頰車等に針し灸は二、三穴を選び五十壯以上にして、五分位楽になるばかり實際は、二、三日間苦しみ自然と治る位のものであった。これも五行法で治る訳と思い、先ず歯痛は実証であるから、胃経の

瀉穴の厲兌を雀啄、捻針等少し荒く、瀉針する事暫にして、三分位楽になった。

この人は元々腎肝虚症の体質であったから、土金実証を間々起す処から、之を強瀉する目的にて又陰陵泉を補した(陰陵泉は土経からして自経の相剋の水穴であるから之を補すると土経は瀉になる) 段々楽になる、又内庭を補し、尺沢を補し足三里、絶骨を瀉した。この如く一針毎に、其の効を問う事にして一針毎に效があるのを知った。又全く鎮痛した歯痛に五行穴を利用したのが、初めての事であるので、この歯は約半分位空洞が出来抜き去るわけであるが訳けであるが、実験の積りで偶々起る歯痛にも、不拘抜取らず実験に使って見たが、其後四回その都度毎偉効を奏した。他の人の場合は如何か知りせんが、以上穴は全穴ですから、御追試願います。

예(11) 36 세 여자(필자의 아내) 왼쪽 아래쪽 충치통

아랫니는 대장경이 통하는 곳이다(위경이라는 서적도 있다). 내 경험으로도 대개 대장경으로 낫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치통은 합곡(合谷), 온류(溫流), 곡지(曲池), 견정(肩井), 예풍(翳風), 혈차(頰車) 등에 침, 뜸은 두세 혈을 선택하여 오십장 이상으로 하고 5 분 정도하면 편안해지고 실제로는 2~3 일 동안 고통이 있지만 자연히 나을 정도였다. 이것도 오행법으로 나을 까닭이라 생각하고 우선 치통은 실증이니 위경의 사혈 여태를 작탁, 염전 침 등 조금 거칠고 사침하는 일이 잠시 후 삼분위 편해졌다.

이 사람은 원래 신간허증 체질이였으므로 토금실증을 간간히 일으키는 곳에서 이를 강사할 목적으로 또 음릉천을 보하였다(음릉천은 토경이기에 자경 상극이 수혈이니 이를 보하면 토경은 사가 된다). 점점 편해지다. 또 내정을 보하고 척택을 보하며 족삼리 절골을 사하였다. 이처럼 한 혈마다, 그 효험을 묻기로 하면서 한 혈마다 효험이 있음을 알았다. 또 전혀 진통효과를 낸 치통에 오행혈을 이용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므로 이 치아는 약 절반 정도 나아지는 셈이지만, 실험의 축적으로 가끔 일어나는 치통에도 구애편지 않고 실험에 사용해 보았는데, 그 후 네 번 그때마다 위효를 보였다. 다른 사람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혈은 전체 혈이기 때문에 추가 시도 바랍니다.

例(12) 二十六歳 肝虚証としての全治者

頭重、眩暈、嘔逆症、消化不良等種々の症が治療して全治したが、或日突然、嘔逆症が起り気分悪く、船酔の様であると、この症は食傷からのものでもなくて胃からでもない。元々肝虚から来る体質的、持病なのである。肝の陽である胆虚を治すれば、よい訳であるから胆の補穴である、自経の水性の俠溪を先ず右側から、補する内小康を得、左側を補して^{たちま}忽ちあの劇甚の嘔逆症が、消散平常の如き好気分になった。

예(12) 26 세 간허증으로서의 전치자

두중, 현기증, 구역증, 소화불량 등 여러 가지 증상이 치료되어 완전히 치료되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구역증이 일어나 기분 나쁘고 배멀미와 같다면 이 증은 식상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원래 간허에서 오는 체질적, 지병인 것이다. 간의 양인 담허를 고치면 되는 까닭이니 담의 보혈인 자경의 수성 혈계를 먼저 오른쪽에서 보하는 동강 소강상태가 되고 왼쪽을 보하여 금세 그 극심의

구토증이 사라져 평상시와 같은 기분이 되었다.

例(13) 三十歳 女 斷食療法施行中 嘔吐

肺結核及び胃腸病で、或る針灸医の治療で医師が認める程、肺結核は治ったが、胃腸病は治らなかった。その上皮膚病の様なものが、顔面に出来たので、606 号の患者を注射している中、段々顔面又全体が、黒色になり口唇は紫黒色になったので数年前、断食療法で良好の成績を得た例に倣い、又断食療法を初めた。断食六日目に禁則の僅かの飴を食し、食傷となり二十四時間目に、僅々不消化のまま吐出したが、それから嘔吐が初まり医師が、三回も来診しても無効、又以前の針灸医の治療も約四十分間の効あったのみ、六日間も断食し無気力の処へ、その苦しみ限りなく悶える処であった。兎角診脉すると肝、腎虚証脉であたが、腹診では臍上、水分正中に動悸ありこれは脾症である、脉と相反するので証を定めるに困ったが、断食して胃を弱らし飴を食し、食傷となった。との見解から脈診を棄て腹診の通りに、胃を補する積りで先ず胃自径の補穴である、火穴解溪を補する事にして極衰弱体であるから、接触針にして弾振三呼吸容態をきくと、上腹部がむくみ衝き上げる様で気分が変であるとの事で、早速抜針、女であるから右側曲泉、陰谷を補している中、腹がす一つと良い気分になり、嘔吐気全く止まった約五分後左側 期門、不容、日月辺が変で気持悪く吐きそうな気持だとの事で、これは肝の邪であり火痰である。火性心経陰郄を瀉したら、電光的にだんちゅう臆中辺に移る。同じく心包径の郄門を瀉したら、頸元天突辺に移り重苦しく気分悪いと、ここで一考えせねばならぬ事は火は降りるべきなのに、段々上に昇るとは、重体患者にしては由々しき問題である。暫く考えた上、水性腎経の火穴然谷(水自経の相剋穴)を瀉した処、又降って心下鳩尾の処へ来た、全く小供のかくれんぼうである。又一考した上、右記刺針は右側のみであったから赤羽幸兵衛氏説の左右平衡を失したものと思われたので、左側曲泉陰谷を補しながら症状をきくと、ガスの様なものが下腹へ降り消え去り、気分全く清々すると云って、間もなく眠って仕舞った。この間様子を見ながら、対処したものであるから、約四時間余かかり夜十一時になり、又二時間容体を見守ったが、異状ないので急症治まった事を認め、其後肝虚証として十日間の内七回治療し、約二ヶ月半ぶりに病床から、起床来診四回で殆んど回復した。後は来診せず。

예(13) 서른 살 여성단식요법 시행중 구토

폐결핵 및 위장병을 어느 침구의사의 치료로 의사가 인정할 정도로 폐결핵은 나았지만 위장병은 낫지 않았다. 게다가 피부병 같은 것이 안면에 생겼기 때문에 그 환자를 주사하던 중 점점 안면 또는 전체가 검은색으로 변하고 입술은 자흑색으로 변하여 몇 년 전 단식요법에서 양호한 성적을 얻은 예로 간주하고 다시 단식요법을 시작했다. 단식 6 일째에 금칙 사탕을 조금 먹고 식사가 되어 24 시간째에 근소하게 소화되지 않은 채 토해냈는데, 그로부터 구토가 시작되어 의사가 세 번이나 내진해도 무효이며, 또 이전의 침구의 치료도 약 40 분간 효과가 있었을 뿐 6 일간이나 단식하여 무기력한 곳으로, 그 고통을 한없이 괴로워하는 처사였다. 여하튼 맥진하면 간, 신허증맥이었는데 복진에서는 배꼽위, 수분정중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동기증세가 나와 비증(脾症)인 맥(脉)과 상반되므로 증을 정하기 어려웠으나 단식하여 위를

약하게 하고 사탕을 먹어 식사가 되었다는 견해에서 맥진을 버리고 복진한 대로 위를 보하는 누적되어 먼저 위자경의 보혈인 화혈 해계를 보하기로 하여 극쇠약체이므로 접촉침으로 탄진 삼호흡하며 용태를 들으면 상복부가 부어오르는 것 같아 기분이 이상하다고 한다. 바로 발침, 여자이기 때문에 우측 곡천, 음곡을 보하고 있는 중 배가 스르르 좋으며 구토기 완전히 멈추고 약 5분 후 좌측 기문, 불용, 일월변이 이상하고 기분 나쁘게 토할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한다. 이것은 간의 사로 하담이다. 화성 심경 인게기陰郄을 사하면 전광적으로 앞가슴 단중부로 옮겨간다. 마찬가지로 심포경의 격문郄門을 사하니 목구멍 아래 천돌변으로 옮겨져 답답하고 기분 나쁘다고 여기서 생각해야 할 일은 불은 내려야 하는데 점점 위로 올라가다니 중태 환자로서는 합당한 문제다. 잠시 생각한 끝에 수성 신경의 화혈연곡(水自經의 상극혈)을 사사한 처, 또 내려 심하구미(心下)의 처소에 온 완전히 어린 아이들의 장난과 같다. 또 한 번 생각한 데다 오른쪽 자침은 오른쪽뿐이었기 때문에 아카바네 유키베 씨설의 좌우 평형을 잃은 것으로 생각되어 좌측 곡천 음곡을 보충하면서 증상을 보이자 가스 같은 것이 아랫배로 내려 사라지고 기분이 완전히 상쾌하다고 말하고 곧 잠들었다. 그동안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처했기 때문에 약 4시간여가 걸려 밤 11시가 되고, 또 2시간 동안 상태를 지켜봤지만 이상이 없어 급증이 가라앉은 것을 인정하고 그 후 간헐증으로 10일간 7회 치료하여 약 2개월 반만에 병상에서 기상내진 4회로 대부분 회복되었다. 그것을 나온 듯하다.

後察と後記

五行針法とは、韓国の古方派が、これのみを以^いって治療しているものであり、日本ではこれを本治法と称したまで、一番重要視しているものであるから、其の効力は其の疾患を治、不治にまで左右されるものである。それ処か証を誤ち、誤診した時の廢症の顕^{あら}われ方は、100%で恐いものである。韓国では第一針、第二薬と云うて一般化の言葉であるが、針治を非常に恐しがり又嫌う人が沢山あるそれは下手な針治医が誤治をし、癢証を起し返証治する事の、能識のないものの所致である。正治の偉効と誤治の悲しさは五行法のみが持っている偉力である。間中喜雄氏の鍼術入門諸座に、鍼の過誤の害を詳細論じて居られたが、証を誤ち、誤治した時の恐しき害は載せてない。薬物療法の不適正量による重大なる結果は、知っていても鍼の不適(証を誤つ)の重大なる結果は御知りにならないらしい。

男左、女右とは、よい場合もあり、不足な場合もあるが私としては結論に達してない。慢性病には出来る丈け、置針の積りで永くした方が、效果的の様である。本治法即ち五行穴^{たけ}丈けは尚更そうである。

急性症は一針毎に、効の顕われ方が著明であるが、慢性病で今日は特に、何処が苦しいという場合、例えば特に頭重とか、心下部が苦しいとか、軀^{からだ}がだるいとか云う時は、五行法理に依る穴を以って、一針毎にきき質しながら針すべきである。又本治法を針しなが

ら矢張一針毎に、容体をきく事である。そうでないと患者は勿論、術者も無意識中に一針毎に効果の顕われる事を知らずに、過ぎてしまうからである、思うに連続的、一通り治療するという事は、不必要な穴を使う事になって結局治したり、元の通りに戻したり、或は悪くしたりを繰返し治療日数が長引いたり、治らないものが出てたりするのでは、ないかと強く考える次第である。一々きくと云う事は) 本治法の穴(五行穴の性能もよくわかり、治率もぐっと向上する、又針の過不足すぐ知る様になるのである。

以上後半記文の断片的なものは、新患者は 論、治療途中副症を現わした時、即席除去せるものでその例は、毎日茶飯事なのであから、無数の例を持っているが、追つて第報として又発表したい。

前半の腹痛治療に付いては、同じ腹痛で 虚実に依つて違ふ事もあり、特に右肋下痛及び肝腫を肺積と云い、又肺経で治する理由実例をあげながら、第二報に補足したいという。

かように、五行穴を主として、その上適当な標治法を加えるならば、極く少数穴で、短期間に偉大な果をあげる事を確信するものである。(韓国釜山市光復洞三街六番地)

후찰과 후기

오행침법이란 한국의 고방파가 이것만을 가지고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이를 본치법이라고 칭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그 질환을 치, 불치에까지 좌우되는 것이다. 게다가 증거를 잘못 알고 오진했을 때 폐증이 나타나는 방식은 100%로 무서운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 1 침, 제 2 약이라고 해서 일반화된 말이지만 침치료를 매우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것은 서투른 침치의를 오치를 하고 폐증을 일으켜 반증치하는 것의 능식이 없는 것이다. 정치의 위효와 오치의 서러움은 오행법만이 갖고 있는 위력이다. 마나카 요시오의 침술 입문 제좌에 침 과오의 해를 상세하게 논하고 있었는데, 증거를 잘못 이해하고 오치했을 때의 무서운 해는 실지 않았다. 약물요법의 부적정량으로 인한 중대한 결과는 알고 있어도 침의 부적정(증거를 잘못 짚는다)의 중대한 결과는 모르실 모양이다.

남좌, 여우와는 좋은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나로서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만성병에는 가능한 한 치침을 쌓아서 오래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다. 본치법 즉 오행혈장은 더욱 그렇다.

급성증은 한 침마다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이 현저한데, 만성병으로 오늘날 특히 어디가 괴로운 경우, 예를 들어 특히 두중이라든가 심하부가 괴롭다든가 몸이 나른하다고 할 때는 오행 법리에 따른 혈을 통해 한 침마다 물어보면서 침을 빼야 한다. 또한 본치법을 침으로 하면서 역시 한 침마다 용태를 듣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는 물론, 시술자도 무의식 중에 한 침마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생각하기에 연속적으로 한 통 치료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혈을 사용하게 되어 결국 고치거나 원래대로 되돌리거나 혹은 나쁘게 하거나 반복해서 치료일수가 길어지거나 낫지 않는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강한 생각이 드는 바이다. 일일이 묻는다는 것은) 본치법의 혈(오행혈의 성능도 잘 알고

치울도 훨씬 향상되는, 또 침의 과부족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다.

이상 후반기 문장의 단편적인 것은 새로운 환자는 논, 치 도중 부증을 나타냈을 때,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예는 매일 다반사이기 때문에 무수한 예를 가지고 있지만, 추후 제보로서 또 발표하고 싶다.

전반의 복통 치료에 대해서는 같은 복통으로 허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우측하통 및 간종을 폐적이라 하고, 또 폐경으로 고치는 이유 실례를 들면서 제 2 보에 보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오행혈을 주로 하여 그 위에 적당한 표치법을 가한다면 극히 소수의 혈로 단기간에 위대한 성과를 거둘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다.(한국 부산시 광복동 3 가 6 번지)